

“전주대대 완주 이전 저지”

박성일 군수·군의회 정성모 의장 ‘한목소리’

박성일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정성모의장은 23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대대(예비군)의 완주군내(봉동읍 소재, 106연대)로 이전하는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

박성일 군수는 특히 절대불가 입장과 함께 “전주대대 이전을 9만6,000여 군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과 같은 매우 민감한 사안을 당사자인 완주군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치

단체간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군민들의 강력하고 결집된 반대 의견이 모아진 만큼 완주군이 앞장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주대대 이전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전주대대 이전이 마치 완주군과의 협의가 필요 없고, 사실상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함으로써 완주군과 군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군민 불안과 행정불신을 증폭시킨 전주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성모 의장은 전주대대는 전주시의 지역방위를 책임지는 부대인데, 이 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가 완주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군민들은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 군민 결집을 통해 이전 저지에 총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봉동을 106연대 일원은 완주군 15만 지역도시 건설의 핵심 사업인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과 미니복합타운 건설, 그리고 4000여 세대 대단위 민간공동주택이 조성되는 완주군 심장부이자 완주군 중추 도시개발계획 지구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완주 발전을 위해 106연대 자체를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을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을 위해 완주군 주민과 행정간 갈등을 유발·조장하는 행위는 불상식과 괴롭힘, 지역이거주의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로 보인다.

박 군수는 이에 “전주시가 전주대대 완주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10만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어떠한 계획과 절차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주시에 있으며 완주군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23일 박성일 군수(오른쪽)와 군의회 정성모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안군 SNS 공감홍보 통했다

페이스북 1만 팬 돌파 27일부터 감사이벤트

진안군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감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인 진안군(www.facebook.com/jinangun)의 팬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기존의 페이스북 프로필과 진안고원 페이지 2가지를 통합해 3500명의 팬을 확보한 뒤 3개월여 만에 6500명이나 늘었다.

진안군 페이스북이 단기간에 1만 팬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감형 콘텐츠에 대한 호응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드론으로 촬영해 올린 진안읍 연정리 원연정마을 꽃잔디동산 동영상은 7만여 명이 봤고, 좋아요 616명, 공유 306회, 댓글 175개를 기록했다.

진안고원의 벚꽃길을 아름답게 담은 마이산벚꽃길 동영상도 5만2700여 명이 봤으며, 73개의 댓글이 달렸다.

벚꽃과 꽃잔디 등 진안고원의 봄꽃과 찍은 사진을 팬들이 직접 페이지



진안군 페이스북 페이지.

에 올리는 봄꽃인증샷 이벤트에는 무려 2902명이 참여를 보였다.

스릴러 영화 ‘곡성’이 관객 6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자 영화 속에 아름답게 나온 모래재 길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큰 공감을 얻기도 했다.

진안-전주를 연결하는 모래재 길을 촬영한 영상은 4만3000여 명이 봤으며, 105명이 친구들에게 공유했다.

진안군 페이스북 콘텐츠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군민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책과 정보, 행정서비스는 기본이다. 이와 함께 관광지, 축제, 농·특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숲과 계곡, 하천 등 진안고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딱딱한 팩트(Fact) 위주의 정보 전달은 지양하고 있다. 부드러운 콘텐츠를 통해 공감을 얻으면 군정에 대한 소통과 홍보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수십, 수백 개가 흘러가는 뉴스피드나 타임라인에서 정책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흥미로운 이미지 콘텐츠 등을 통해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 팬 1만 명을 확보한 군은 6월 27일~7월 7일까지 감사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jinangun)을 찾아 좋아요를 누르고 축하 댓글을 달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흥삼 관련 제품을 증정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정례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심사,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동의안 2건, 조례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문)를 구성하여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했다.

또한 군정주요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를 구성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7개 읍·면 33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장수군의회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효과 및 예산 낭비요인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에 지적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진안군은 23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방식으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서비

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국제·지방세와 불복청구 등의 세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진안읍은 복전주세무사협의회 소속의 최정근 세무사가 용담면 등은 김정두 세무사가 면단위 마을세무사로 위촉되어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군홈페이지,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차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문의(063-430-2297)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과 천마사업단, (주)KT가 23일 천마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천마 신뢰로 승부한다

전국 최초 GS1 농산물이력관리 시스템 적용

무주군과 무주천마사업단, (주)KT가 23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천마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주)KT의 국책사업인 GS1(국제표준식별자규격코드)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무주천마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황정수 군수와 무주천마사업단 유찬주 단장, (주)KT 홍경표 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천마는 누가 뭐래도 무주군 대표 작목”이라며 “이 자리가 천마를 지키고, 알리며 더 붙여 무주농업까지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과 무주천마사업단, (주)KT가 합의한 무주천마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는 GS1 농산물이력관리 시스템 적용과 관련해 △무주군이 대상 확산과 홍보,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 그리고 △(주)KT가 무주천마에 대해 GS1 농산물이력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운영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력을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GS1 표준 기술과 KT의 ICT기술을

접목해 구축 중인 GS1(국제표준식별자규격코드) 농산물이력관리 시스템은 농식품 및 공산품의 이력관리와 진품인증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천마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무주천마이력추적시스템 개발사업과 연계돼 무주천마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표준식별자 규격이라는 점에서는 국제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도 키우고 있다.

(사)무주천마사업단 유찬주 사업단장은 “GS1무주천마에 적용하기 위해 무주군과 무주천마사업단이 (주)KT측에 생산, 정보, 통계 DB를 제공하며 천마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주)KT의 서비스 연동을 통한 진품인증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2018년 정식서비스를 앞두고 시범 적용하는 것이지만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무주천마 이력추적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천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점에서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군은 천마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연구를 통한 우량종자 생산,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종근배양센터를 활성화시켜 농가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청동농협은 22일 ‘신나는 알프스 음악여행’을 제공했다.

“경쾌한 요들송으로 힐링을”

무주군청동농협, ‘신나는 예술여행’ 진행

군청동농협(조합장:양승욱)은 지난 22일 실천면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구천동농협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16 신나는 예술여행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광주엔시안호텔클럽이 주관하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으로 문화기반이 부족한 곳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다.

본 사업은 정부3.0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독특한 발성이 특징인 요들송과 경쾌한 리듬과 깨끗한 음색이 특징인 다양한 알프스민속악기 연주로 평소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농촌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독특한 발성이 특징인 요들송과 경쾌한 리듬과 깨끗한 음색이 특징인 다양한 알프스민속악기 연주로 평소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농촌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은 세계에서 가장 긴 악기(3m40cm)이자 깊은 울림이 있는 알프혼 연주를 시작으로 바이에른체너, 피푸랑 할머니, 즐겨

운 산행 길, 즐거운 여행, 아름다운 스위스아가씨 등의 요들송을 솔로 중창 듀엣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아코디언과 비스나나 전혀 다른 성격의 악기인 외르겔리, 그리고 소복에 단 방울을 악기로 만든 카우벨 등을 연주하고 우드스폰, 레제, 빗자루 등 리듬악기도 함께 연주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광주엔시안호텔클럽은 이처럼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음악인데다 여러 악기도 생소한 만큼 관람객들에게 요들송 배워보기, 알프스민속악기 연주해보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갖는다고 밝혀 관람객들에게도 더욱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한편, 양승욱 조합장은 “이번 공연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구천동농협은 지역주민과 조합원을 위하여 더 많은 나눔복지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진안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27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개량사업을 비롯해 모두 12건의 사업을 진행해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세부사업으로 주택신축 자금을 저리로(농협자금 연 2.0%) 용자보조 해주는 주택개량사업 90여동,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철거 지원사업 130동에 1억5,200만원,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사업에 1억3,800만원, 모정지원사업에 29동 7억5,300만원을 투자했다.

또한 저소득층 노후주택 63곳에 대한 개보수사업, 저소득계층 3가구에 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초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8억9,000만원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미꾸라지 10만마리 방류

장수군은 수생생태계 먹이사슬 보호와 토종어종의 복원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금강천과 요천 등 4개소에서 토종어류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 지역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여해 지역 토종어종의 활성화를 기원하며 미꾸라지 치어 10만마리를 방류했다.

특히 이번에 방류한 미꾸라지는 마리당 하루에 모기 유충 1,100마리 이상을 먹어 치워 모기방제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하천에 산소를 공급해 수질 개선 및 하계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타구 청소년 대표 선수 30명 7월10일까지 무주서 합숙훈련

무주군은 2016 아시아 주니어·카넷 탁구선수권 선발전에서 선발된 탁구 청소년 대표 선수 30명이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 간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합숙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무주군체육회가 주관해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전지 훈련지로서의 무주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016 탁구 청소년 대표 선수(15세 이하)들은 '86 서울아시아게임과 '90 북경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박지현 前 국가대표가 전담 지도자로 나서 훈련을 지도하고 있으며, 내동중 천도권 코치와 문성중 오윤정 코치, 천안중 유영식 코치, 대한항공 김정현 코치가 함께 선수들의 기초체력과 정신강화, 기본기술 정립과 서브 및 리시브 훈련 등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롤, 'TWO 라이트 캠페인'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생활안전교통과장 최찬권은 22일 무주군청 정문에서 무주서와, 무주군청 문화관광과·건설교통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WO라이트 제2차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에 실시했던 '겨자! TWO라이트, 지키자! TWO라이트' 캠페인과 같은 내용으로 캠페인 참가자들은 'TWO라이트' 전단지 부채 등을 제공하며 교통문화의식 수준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했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앞으로도 무주군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달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최찬권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군민들의 방향지시 등 커기는 잘 지켜지지만 아직까지 주간전조등 켜기는 미미하기에 앞으로 유관기관 및 무주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